

식생활 관련 변인들이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허 향 련* · 이 경 애**

부산 연신초등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The Effect of Various Factor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ood and Nutrition' Units in Practical Arts

Hur, Hyang-Ryeon* · Lee, Kyoungae**

*Yonshin Elementary School in Busan**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ctor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ood and Nutrition' units in the Practical Arts: factors such as gender, family and home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in, interest in, attitude toward, and encouragement by mother in meal management.

The factors were surveyed for 453 grade four elementary students (226 boys and 227 girls) and their mothers in Busan. The extent of participation in meal management, of interest, of attitude, and of the mother's encouragement was broken into three groups. Upon completing the "Table Setting with Fruits" unit,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were evaluated and compared according to these fact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girls participated in meal management more frequently than the boys. Most of the children exhibited a high interest, the girls showing a higher interest than the boys. Both sexe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meal management. Mothers encouraged girls more often than boys to manage meals at home.
2.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girl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oys. Children living in apartments and more affluent environments scored higher than those who were less well off and living in independent households.
3. Those who frequently participated in meal management, exhibited a high interest,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it, achieved higher scores than those who showed a lower interest, less positive attitude, and only occasionally participated in it.
4. Those who were encouraged frequently to manage meals by their mother showed a tendency to score higher than those who were encouraged only occasionally.

In conclusion,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ood and Nutrition' units in Practical Arts

was affected by gender, domestic economy, type of residence, participation in meal management in the home, interest in it, attitude toward it, and encouragement in participation by the mother. Thus academic achievement in food, nutrition, and meal management is dependent upon both the school and home environments. Children would learn more in the 'Food and Nutrition' units when their parents set a positive and encouraging environment in the hom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과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게 하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기능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과로 실과 학습의 내용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 계발적 요소를 갖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잘 익히고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실과교육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8).

그러므로 학습내용이 아동의 실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학습이 가정과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실과 학습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과제에 대한 흥미, 태도, 자아개념, 동기 등의 정서적 행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류청산, 1994) 실과 태도는 실과성적, 실과에 대한 흥미, 실습 경험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조순옥과 박행모, 1997) 아동의 실과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 태도, 흥미 및 선행 경험정도가 실과학습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아동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가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실과학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노작과 실천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실과의 학습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환경의 여러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순옥과 박행모, 1997; 김주이, 1999; 상정기와 김계동, 1999; 배상완과 나승일, 2000). 그러나 반대로 학생들이 가정생활에 참

여하는 정도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정 일을 참여시키는 정도가 실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학생들의 가사 노동 및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 및 참여정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고(한혜숙, 1992; 안성자와 김영남, 1996; 이준임, 1996; 강영희와 김영남, 1999; 이지선과 조혜정, 1999; 채금희와 최동숙, 200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상정기와 김계동,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환경, 식생활관리의 참여 정도, 흥미 및 태도 그리고 어머니의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 등 식생활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초등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가정환경변인(조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수준, 주거형태, 형제 수, 출생순위, 식사도우미 유무 등),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도, 흥미 및 태도를 조사한다.

2)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력과 연령, 취업여부, 자녀에 대한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를 조사한다.

3) 실과 4학년 '과일상 차리기'단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4) 아동의 성별, 가정환경,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도, 흥미, 태도, 어머니의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에 따른 아동의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역의 아동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1) 식생활관리

식생활관리는 식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으로 즉 식사계획, 식품구입, 식사준비, 식탁준비와 대접하기, 설거지, 부엌과 그 기구의 관리, 식당과 그 설비의 관리를 말한다.

2) 어머니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 권장도(이하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어머니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 권장도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를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 개인 변인과 실과 학습

1) 성별

제2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실과는 남녀 구분없이 이수되어야 하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남녀의 성에 따라 학습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박순자와 정덕희(1997)의 연구에 의하면 실과 학습영역 중 가장 흥미를 느끼는 영역이 가정영역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여학생 40.3%, 남학생 21.7%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실과교과에 대한 흥미를 분석한 류청산(199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컸다. 또한 김주이(1999)와 배상완과 나승일(2000)의 연구에서는 실과학습의 생활화정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고 상정기와 김계동(1999)의 연구에서도 생활관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스로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볼 때 아동의 성별은 실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실과에 대한 흥미 및 태도

태도란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체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의 감정이며, 여

러 가지 경험에 의하여 학습되어지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이춘식, 1999).

최유현(1997)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을 때 학습될 가능성은 그 만큼 낮아진다고 하였고 조순옥과 박행모(1997)는 초등학생의 실과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의 연구에서 실과에 대한 실과성적과 실과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실과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한혜숙(1992)은 학습내용에 흥미도가 높을수록 실생활에 적용하는 태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는다고 하였고 이준임(1996)은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조사에서 가정교과를 좋아할수록 흥미도와 활용도가 모두 높았다 한다. 김주이(1999)도 실과 태도는 실과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실과 생활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여 실과 태도가 실과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실과에 대한 태도와 흥미정도는 실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환경 변인과 실과 학습

아동의 일상생활은 가정이 주 장소이므로 아동의 일은 가정에서의 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내의 여러 요인에 의해 실과 학습내용에 대한 태도, 흥미, 경험정도(참여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이는 아동의 실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실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 변인으로는 물리적 환경변인과 가족변인을 들 수 있다.

(1) 물리적 환경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과 학습을 실천하거나 생활화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준비물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산업화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정의 가사환경을 편리하게 개선시킴으로써 점차 가정에서의 공동생활을 증가시키고 부부간의 역할 공유를 더 가능케 하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빈부 차에 의한 주거 형태별 시설 및 설비도 아동의 실과에 관한 경험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의 성숙 여부에 따라 생활에서의 실천율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배상완과 나승일, 2000). 김학수와 허창규(1969)도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의 구성에 따라 학습효과에 차이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거 형태 등 아동의 가정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은 실과학습 효과의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가족 변인

출생 순위 및 형제 수, 가족 형태, 식사도우미 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정생활이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동의 가사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지선과 조혜정(1999)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 참여 연구에서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참여정도가 형제수와 가족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가족 변인중 특히 부모의 태도,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가사노동 참여 권장도는 실과의 생활화와 가사노동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란 자녀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태도는 곧 자녀의 지각의 척도가 되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가 특정한 일에 대하여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그와 반대로 조장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일에 대한 실천 정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일 것이다(신경숙, 1994) 상정기와 김계동(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 방식에 따라 초등학생의 생활관리 정도가 달랐다고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정생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나 아동에게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권장 또는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들은 가정생활을 주 학습대상으로 하는 실과에 대한 태도와 실과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배상환과 나승일(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허용도에 따라 실과생활화 정도가 달랐으며 김주이(1999)의 연구에서도 실과 생활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허용도였으며 부모의 허용도 즉 참여 권장도는 실과학업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실과에 대한 태도를 거쳐 실과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족 변인들은 아동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 및 흥미, 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쳐 실과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서 부산지역 5개 교육청 소재 초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교에서 4학년 3개 학급(총 15개 학급)을 임의로 뽑아 그 학급의 학생들 전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319명과 여학생 299명으로 총 607명이었다.

2. 조사 및 검사 도구

1) 아동과 어머니의 설문지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설문지는 관련되는 문헌(상정기와 김계동, 1999; 배상환과 나승일, 2000)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되었으며 부산 소재 1개 초등학교 4학년 1학급(44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의 난이도, 문제점등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설문지

아동의 일반사항,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및 태도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아동의 성별, 부모와의 동거, 경제수준, 주거 형태, 형제의 수, 출생순위, 식사도우미 유무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는 매일 참여가 가능한 8개 문항은 '매일 한다', '1주일에 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거의 안 한다'의 5단계로, 매일 참여가 어려운 6개 문항은 '1주일에 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현재까지 1번 정도', '전혀 해보지 않음'의 5단계로 구성되었고 식생활 관리 영역별로 구분하면 식품구매 3문항, 조리 4문항, 상차리기 2문항, 설거지 4개 문항, 접대하기 1문항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 및 태도는 각각 10문항과 8개 문항으로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을 작성하였다.

아동의 식생활 관리 참여도, 흥미 및 태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0.85, 0.79, 0.56$ 이었다.

(2) 어머니 설문지

어머니의 설문지는 일반사항(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직업 여부)과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10 문항)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는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0.83$ 이었다

2)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 6차 실과교육과정 4학년 '과일상 차리기' 단원에 대한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를 위한 평가도구는 이미지와 윤인경(1999)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행평가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용 3개, 교사용 1개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용 상호평가지는 제철과일의 종류와 고르는 방법, 씻는 방법에 대한 4가지 문항에 대해 짝끼리 서로 물어 각 문항에 대해 1가지 이상 알면 2점, 1가지만 알면 1점, 전혀 모르면 0점으로(4×2=8점 만점) 평가하게 하였다. 인터뷰하기(연구보고서)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칼, 도마, 행주'를 다루는 방법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칼, 도마, 행주 3항목 모두에 대해 2명 이상 물어보고 내용을 적으면 8점, 3가지를 1명에게만 물었을 경우는 7점, 3가지 중 2항목을 2명에게 물었으면 6점, 1명만 물었으면 5점..... 의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과일 예쁘게 자르기를 그림 그리기와 설명내용 적기(연구보고서)는 사과, 바나나, 기타 과일 1개 총 3개의 과일에 대해 각 과일마다 예쁘게 자른 과일을 접시에 담은 그림과 내용을 2점씩 하여 3가지 과일로 계산하여 6점(2×3=6점)을 부과하였다. 교사용 실습 평가지는 4가지 평가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2점, 1점, 0점의 3단계(4×2=8점 만점)을 교사가 조별 또는 개인별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모두 조별 평가하였다.

아동용 평가지는 22점을 만점으로, 교사용 평가지는 8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30점을 학업성취의 평가 점수로 삼았다. 학업성취도를 위한 평가유형, 평가내용, 평가형식 및 점수배분은 <표 1>과 같다

4. 자료수집 방법

설문지 조사는 200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아동들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요령을 잘 설명하고, 특히 가정에서 조사되어야 할 학부모의 설문지를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끝내고 1개월이 지난 후인 2000년 5월에 각 학급별로 각 학급의 교사가 직접 실과 4학년 '과일상 차리기'단원의 수업을 실시한 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설문지는 총 607부(남: 319부, 여: 288부)가 배부되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 설문지 모두가 성실하게 응답된 것 453부만을 통계자료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DOW 8.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가정 환경 관련 문항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likert 척도에 의한 문항은 5점에서 1점까지 점수화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남녀간의 차이를 t-test로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에 대하여 각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 1/2 표준편차 이하를 '하'집단, 평균 ± 1/2 표준편차 범위를 '중'집단, 평균 + 1/2 표준편차 이상을 '상'집단으로

<표 1> 학업성취도를 위한 평가도구

대상 \ 구분	평가유형	평가내용	평가형식	평가점수
아동용	상호평가지	과일의 종류와 다루기	짝끼리 묻기	8점
	연구보고서	칼, 도마, 행주 다루는 법	인터뷰형식	8점
	연구보고서	과일 예쁘게 자르기	그림과 설명기록	6점
교사용	실습법 평가	과일상 차림 평가	조별	8점

로 나누어 각 집단의 학업성취도간의 차이를 F-test로 검증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아동의 성별과 가정 환경 변인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와 가정환경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226명(49.9%), 여학생이 227명(50.1%)이었고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은 81.7%로 핵가족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잘 산다' 28.3%, '아주 잘 산다' 11.9%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51.0%, 단독주택 29.8%, 연립주택 13.2%로 공동주택(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아동이 64.2%로 단독주택보다 많았다. 형제가 2명인 아동이 71.7%로 가장 많았고, 형제의 순위로는 '첫째'가 54.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이외에 식사관리 도우미가 '있다'고 답한 아동은 1/2 이하(44%)였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32.0%, 없는 어머니는 68.0%로 전업주부가 2배 이상 많았다. 어머니의 나이는 35-40세가 59.4%, 40-45세가 28.7%로 35-45세가 대부분이었으며 어

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7.5%, 대졸 이상이 43.9%이었다<표 2>.

2.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1)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와 식생활관리 영역별 참여도는 <표 3>, <표 4>과 같다.

<표 3>의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는 14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에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47.4점)보다 여학생(53.0)이 가정에서 식생활관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남녀 모두 참여도가 높았던 항목은 '5. 간식 스스로 차려 먹기'와 '4. 식사 후 수저와 식기를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기' '1. 밥상 차릴 때 수저 놓기'로 일주일에 2-3회 참여하고 있었다. 상정기와 김계동(199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아동은 식생활관리에서 남녀 모두 '간식 내가 찾아 먹기', '식사 전 수저 차리기', '식사후 식기와 수저 개수대에 넣기'를 '항상 내지 자주 그렇게 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70-85%로 참여도가 높았고 직접 라면을 끓여 먹거나 과일 깎기, 설거지하기의 참여정도는 이보다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남학생들은 '5. 간식 스스로 차려 먹기'와 '4. 식사

<표 2> 아동의 성별 분포와 가정환경 변인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	226 (49.9)	조부모 동거 여부	동거	83 (18.3)
	여	227 (50.1)		비동거	370 (81.7)
경제 수준	아주 잘 산다	54 (11.9)	주거 형태	단독 주택	135 (29.8)
	조금 잘 산다	128 (28.3)		아파트	231 (51.0)
	보통이다	260 (57.4)		연립주택, 빌라	60 (13.2)
	가난하다	11 (2.4)		기타	27 (6.0)
형제 수	혼자	40 (8.8)	형제 순위	첫째	245 (54.1)
	2명	325 (71.7)		둘째	172 (38.0)
	3명 이상	88 (19.4)		셋째 이상	36 (7.9)
어머니 직업 유무	유	145 (32.0)	식사관리 도우미 유무	있다	201 (44.4)
	무	308 (68.0)		없다	252 (55.6)
어머니 연령(세)	30 - 35 미만	38 (8.4)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37 (8.3)
	35 - 40 미만	269 (59.4)		고졸	217 (47.9)
	40 - 45 미만	130 (28.7)		대졸	168 (37.1)
	45 이상	16 (3.5)		대학원졸	31 (6.8)

〈표 3〉 식생활관리 참여도

질 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1. 나는 밥상 차릴 때 수저는 내가 놓는다.	남	3.5	± 1.45	3.94***
	여	4.0	± 1.14	
2. 나는 밥상 차릴 때 반찬 놓는 것을 도와드린다.	남	3.2	± 1.45	5.29***
	여	3.9	± 1.14	
3. 나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한다.	남	2.2	± 1.33	6.27***
	여	3.0	± 1.31	
4. 나는 식사 후 수저와 빈 식기를 반드시 설거지통에 넣는다.	남	3.9	± 1.33	1.11
	여	4.1	± 1.30	
5. 나는 간식을 내가 스스로 차려 먹는다.	남	4.0	± 1.35	1.12
	여	4.1	± 1.26	
6. 나는 어머니가 조리하실 때 도와드린다.	남	2.7	± 1.46	4.58***
	여	3.3	± 1.44	
7. 나는 식사 후 어머니를 도와 남은 반찬을 정리한다. (냉장고에 넣는다.)	남	3.1	± 1.48	5.28***
	여	3.8	± 1.36	
8. 나는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한다. (행주로 닦는다.)	남	2.6	± 1.46	6.11***
	여	3.4	± 1.42	
9. 나는 간단한 식품을 사러 간다. (과, 두부...)	남	4.5	± 0.91	2.45*
	여	4.7	± 0.75	
10. 나는 과일을 사러 간다.	남	4.1	± 1.42	1.32
	여	4.3	± 1.18	
11. 나는 차나 음료를 차려 손님이나 가족에게 낸다.	남	2.7	± 1.52	5.36***
	여	3.4	± 1.35	
12. 나는 집에서 과일을 씻거나 깎는다.	남	2.6	± 1.53	6.87***
	여	3.5	± 1.35	
13.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슈퍼마켓)에 자주 간다.	남	3.9	± 1.24	3.46**
	여	4.3	± 0.97	
14. 나는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스스로 해먹는다.(라면 끓이기, 계란 후라이...)	남	3.7	± 1.60	1.59
	여	4.0	± 1.41	
합계 (70점)	남	47.4	± 11.3	5.49***
	여	53.0	± 10.5	

*p<0.05, **p<0.01, ***p<0.001

※ 1-8항목: '매일':5점, 1주일에 3번 정도:4점, 1주일에 1번 정도: 3점, 1달에 1번 정도: 2점, 거의 안 함:1점
 9-14항목: 1주일에 3번:5점, 1주일에 1번 정도:4점, 1달에 1번 정도:3점, 현재까지 1번 정도:2점, 전혀 해보지 않음:1점

후 수저와 식기를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기의 2개 항목만이 1주일에 3번 정도 참여하였고 '1. 밥상 차릴 때 수저 놓기', '2. 밥상 차릴 때 반찬 놓기' '7. 식사 후 남은 반찬 정리하기', '10. 싱싱한 과일 사기', '14. 두부 같은 간단한 식품사기'의 5개 항목은 1주일

에 1번 이상 참여했으며 그 이외 항목은 한 달에 1번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11. 차나 음료를 손님이나 가족에게 내기'와 '12. 과일을 씻거나 깎기'를 한달에 1.5회 정도 하였고 나머지 12개 항목은 1주 1회 이

〈표 4〉 식생활관리 영역별 참여도

식생활관리 영역	성별	영역별 평균 (평균 ± 표준편차)	t값
식품구매 (3문항)	남	4.2 ± 0.82	3.32**
	녀	4.4 ± 0.71	
	전체	4.3 ± 0.77	
조리 (3문항)	남	3.0 ± 1.10	5.95***
	녀	3.6 ± 1.02	
	전체	3.3 ± 1.10	
상차리기 (3문항)	남	3.6 ± 1.06	4.55***
	녀	4.0 ± 0.90	
	전체	3.8 ± 1.00	
설거지 (4문항)	남	2.9 ± 0.98	6.48***
	여	3.6 ± 1.02	
	전체	3.3 ± 1.05	
대접하기 (1문항)	남	2.7 ± 1.52	5.36***
	여	3.4 ± 1.35	
	전체	3.1 ± 1.44	

p<.01, *p<.001

상하고 있었으며 특히 '4. 식사 후 수저나 식기를 설거지통에 넣기' '5. 간식 스스로 차려먹기' '1. 밥상 차릴 때 수저 놓기', '밥상 차릴 때 반찬 놓기'는 1주일에 3번 정도 참여하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 참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들의 식생활관리 참여도를 식생활관리 영역별로 분류하여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관리의 모든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표 4〉 식품구매, 상차리기, 조리하기, 설거지, 대접하기 순으로 식생활관리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희와 김영남(1999)의 연구와 이지선과 조혜정(199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시절은 생활 전반 및 학교 생활에서 아직 성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고 시대가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관리 참여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성차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지선과 조혜정(1999)의 연구와 채금희와 최동숙

(2000)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25와 3.28이었고 심지어 강영희와 김영남(1999)의 연구에서는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영역에서 모두 3점이 하(5점 만점)의 낮은 참여를 보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 식생활관리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식생활관리 참여정도가 높은 것은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과 이에 편승한 부모의 교육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을 손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전기기가 가정에 많이 보급된 이후 자녀의 가사 노동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소비상품의 증가도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를 높이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성희와 이기영, 1997).

2) 아동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흥미 및 태도

아동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흥미 및 태도 정도는 〈표 5〉, 〈표 6〉와 같다.

초등학교 4학년생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 정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식품을 사러 가는

〈표 5〉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

질 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1. 나는 주방(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남	3.6	± 1.20	2.13*
	여	3.9	± 1.10	
2. 나는 설거지를 하는 것이 즐겁다.	남	2.8	± 1.46	8.08***
	여	3.8	± 1.13	
3.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음식 만드는 것이 즐겁다.	남	3.7	± 1.41	4.54***
	여	4.3	± 1.08	
4. 나는 혼자서 음식 만드는 것이 즐겁다.	남	3.1	± 1.56	2.75**
	여	3.4	± 1.44	
5. 나는 식품을 사러 가는 것이 재미있다.	남	3.4	± 1.47	1.60
	여	3.6	± 1.25	
6. 나는 밥상차리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즐겁다	남	3.5	± 1.39	2.78**
	여	3.8	± 1.14	
7. 나는 만들 줄 아는 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남	4.2	± 1.17	3.49***
	여	4.6	± 0.91	
8.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은 만들어보고 싶다.	남	4.2	± 1.24	3.78***
	여	4.6	± 0.86	
9. 나는 어머니의 생일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싶다	남	4.2	± 1.21	3.76***
	여	4.5	± 0.85	
10. 나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보고 싶다.	남	3.8	± 1.33	6.76***
	여	4.6	± 0.89	
전 체 평 균(50점)	남	36.4	± 7.96	6.86***
	여	40.9	± 5.83	

*p<0.05, **p<0.01, ***p<0.001

※ 항상 그렇다:5점, 자주~:4점, 가끔~: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것이 재미있다'의 1개 항목을 제외한 그 밖의 7개 항목 모두 남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여학생(40.9점)이 남학생(36.4점)보다 식생활관리에 더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흥미를 많이 느끼는 항목은 '7. 만들 줄 아는 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8.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싶다', '9. 어머니의 생일날 음식상을 차려드리고 싶다'로 4점 이상의 높은 흥미를 나타내었고 그 밖의 항목에서도 흥미정도가 3점 이상으로 남학생들은 식생활에 대해 비교적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식생활관리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는 항목인 '3. 어머니와 함께 음식 만드는 것이 즐겁다', '7. 만들 줄 아는 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8.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9. 어머니의 생일날 음식상을 차려드리고 싶다', '10. 과일을 예쁘게 깎아보고 싶다'는 4점 이상으로 높은 흥미를 보였고, 그 외의 항목에서도 3점 이상으로 식생활에 대해 비교적 높은 흥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 '3.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의 항목만이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을 뿐, 그 밖의 7개 항목은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나 흥미에 비해서 태도면에서는 남녀간에 성차이가 적어 식생활관리

〈표 6〉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

질 문	성별	평균	± 표준편차	t-test
1. 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	4.1	± 1.12	0.38
	여	4.1	± 1.06	
2. 나는 식사를 잘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남	4.4	± 1.04	0.35
	여	4.4	± 1.00	
3. 나는 어머니가 음식 만드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남	4.2	± 1.08	2.28*
	여	4.4	± 0.87	
4. 나는 아버지도 식사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	4.0	± 1.27	1.62
	여	3.8	± 1.33	
5. 나는 아버지도 설거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남	4.0	± 1.37	0.36
	여	4.0	± 1.36	
6. 나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	4.3	± 1.26	0.82
	여	4.2	± 1.30	
7. 나는 식품을 사는 것은 반드시 여자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	4.2	± 1.32	0.47
	여	4.1	± 1.30	
8.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여자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남	3.6	± 1.51	0.05
	여	3.6	± 1.51	
합 계 (40점)	남	32.7	± 4.8	0.48
	여	32.6	± 5.0	

* p<0.05

※1-5번 항상 그렇다:5점, 자주~:4점, 가끔~: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6-8번 전혀 그렇지 않다:5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가끔~:3점, 자주~:2점, 항상 그렇다:1점

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8문항 중 7개 문항이 모두 4점 이상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식생활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어머니들이 자녀를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는 정도(이하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은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자녀의 성별에 차이를 두어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계 점수에서도 남학생(30.0점)보다 여학생(32.3점)이 식생활관리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옛날부터

부엌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어머니들 스스로 여전히 느끼고 있으며,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는 평균 3점 정도로 높지 않았는데 어머니들은 4학년 자녀들을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기엔 아직 애초로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요즘은 같은 핵가족시대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자녀를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식생활관리가 편리해진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오후시간을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바쁜 도시아동이라는 점도 식생활관리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7〉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질 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1. 식사 후 빈 그릇과 수저는 반드시 개수통에 넣게 한다.	남	3.7	± 1.22	1.14
	여	3.9	± 1.19	
2. 식사시 밥이나 국을 더 먹고자 할 때나 물을 먹으려 할 때 스스로 가져다 먹도록 시킨다.	남	3.7	± 1.15	0.43
	여	3.7	± 1.08	
3. 간단한 식품을 사 오게 한다. (예: 두부, 간장...)	남	3.5	± 1.02	2.59**
	여	3.8	± 0.99	
4. 음식을 만들 때 자녀에게 돕도록 시킨다.(예: 마늘 까기, 채소 다듬기...)	남	2.5	± 1.03	3.17**
	여	2.8	± 1.11	
5. 식사 후 밥상(식탁)을 행주로 닦게 한다.	남	2.4	± 1.10	3.86***
	여	2.9	± 1.17	
6. 밥상 차릴 때 수저를 놓게 한다.	남	3.3	± 1.22	3.79***
	여	3.7	± 0.99	
7. 간단한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시킨다 (예: 계란 후라이, 라면 삶기...)	남	2.7	± 1.25	1.48
	여	2.9	± 1.17	
8. 과일을 깎아 보도록 시킨다.	남	2.2	± 1.08	3.01**
	여	2.5	± 1.10	
9. 간식을 자기가 가져다 먹게 한다.	남	3.8	± 0.99	1.98*
	여	4.0	± 0.92	
10. 다과상을 내오게 한다.	남	2.1	± 1.05	1.16
	여	2.2	± 1.05	
전 체 평 균(50점)	남	30.0	± 7.15	3.62***
	여	32.3	± 6.47	

*p<0.05, **p<0.01, ***p<0.001

※ 항상~:5점, 자주~:4점, 가끔~:3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3. 성별 및 가정환경변인,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1) 성별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는 조부모와의 동거여부, 형제 수나 출생 순위, 식사도움 유무, 어머니의 학력이나 연령,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 경제수준, 주거 형태에 따라서는 〈표 8〉과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실과 학업성취도는 각각 23.1점과 24.8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아동들이 스스로 생

각하는 '보통이상으로 잘산다'는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21.8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는 가정의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실과 학습을 가정에서 생활화한 점수도 높았다는 배상완과 나승일(2000)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즉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아동은 하루 3기의 끼니를 잇는 것에 만족해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적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살기가 편찮은 가정보다 과일을 구매하고 과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주거형태별 학업성취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의 학업성취도(24.4점, 23.9점)가 단독주택에 사는 아동의 학업성취도(23.2점)보다 높았으며 가정형편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

〈표 8〉 성별, 경제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른 학업성취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또는 F값
성별	남	23.1±3.4	t = 5.56***
	여	24.8±2.9	
경제수준	아주 잘산다	23.1±4.2 ^{ab1)}	F = 3.23*
	조금 잘산다	24.0±2.9 ^a	
	보통이다	24.2±3.2 ^a	
	가난하다	21.8±3.5 ^b	
주거형태	단독주택	23.2±3.4 ^{ab1)}	F = 4.09**
	아파트	24.4±3.1 ^b	
	연립주택, 빌라	23.9±3.8 ^{ab}	
	기 타	24.1±2.0 ^b	

*p<0.05, **p<0.01, ***p<0.001.

1) 서로 다른 문자를 가진 집단의 평균간에는 유의적인 차이있음(Duncon test)

우 부엌의 동선이나 설비 면에서 아동이 많은 실습을 해본 결과라고 보여진다. 배상완과 나승일(2000)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시설 및 설비의 구비정도가 높을 수록 아동이 실과를 생활화하는 점수도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동의 성별과 가정환경 중 경제 수준과 주거 형태는 아동의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차이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점수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각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생활 관리 참여도도 '중'이상인 집단들과 '하'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식생활관리 참여정도가 '중'이상인 집단들의 학업성취도가 '하' 집단의 학업성취도 보다 높았다(p<0.05). 이것은 아동이 평소 가정에서 본 단원을 배우기 전부터 행한 실제의 실습을 통한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9〉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권장도에 따른 아동의 학업성취도

구분	집단(N)	평균±표준편차	F값
식생활관리 참여도	상 (163)	24.2±3.00 ^{ab1)}	3.11*
	중 (196)	24.2±3.23 ^a	
	하 (92)	23.3±3.09 ^b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	상 (155)	24.4± 2.93 ^a	5.89**
	중 (179)	24.1± 3.11 ^a	
	하 (128)	23.1± 3.64 ^b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	상 (163)	24.2± 3.09 ^a	3.43*
	중 (196)	24.3± 3.05 ^a	
	하 (92)	23.4± 3.53 ^b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	상 (134)	23.7± 3.30 ^{ab1)}	2.90*
	중 (196)	24.4±3.10 ^a	
	하 (150)	23.6± 3.31 ^b	

* p<0.05, **p<.01

1) 서로 다른 문자를 가진 집단의 평균간에는 유의적인 차이있음(Duncon test)

아동의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중'이상 인 집단의 아동이 '하' 집단의 아동보다 실과 식생활 영역의 학업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각각 $p < 0.01$, $p < 0.05$). 이는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 있고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아동이 식생활에 대한 흥미가 적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아동보다 실과 식생활단원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실과 식생활영역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주이(1999)도 실과 생활화 경로모형에서 실과 태도는 실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과영역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아동들이 학습하기 이전에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전개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가 '중'인 집단과 '하'인 집단의 실과 식생활단원 학업성취도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에 따른 아동의 실과 식생활단원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적었던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어머니들이 식생활관리에 적극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중'집단과 '하'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식생활관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보다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키는 것은 아동들로 하여금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식생활영역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김주이(1999)는 실과 생활화 경로분석에서 부모의 허용도(본 연구에서의 참여 권장도와 같은 의미)가 실과 생활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이었고 다른 변인들을 통한 간접효과도 컸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의 허용도가 실과학업성취도를 거쳐 생활화에 이르는 효과도 컸으며 부모의 허용도가 실과태도에 영향을 준 것이 다시 실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어 생활화에 영향을 준 효과가 더 컸다고 한다. 이는 부모의 허용도 즉 참여 권장도는 실과학업 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결과와 김주이(1999)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는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226명과 여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환경변인과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및 태도, 어머니의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어머니의 참여권장도) 등 식생활관련 변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같다.

1. 본 연구대상 아동의 경제수준은 보통이상 이었고 대부분 핵가족이었으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이 더 많았다. 형제는 2명인 아동이 가장 많았고, 출생 순위는 첫째가 1/2 정도였다. 어머니 이외에 식사관리 도우미가 있는 가정은 1/2 이하였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1/3정도였다. 어머니의 나이는 35-45세가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이었다.

2. 아동들의 식생활관리 참여도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많이 참여하는 영역은 식품구매였으며, 비교적 참여가 덜 한 영역은 설거지와 대접하기 영역이었다. 아동들의 식생활관리 흥미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남녀 모두 식생활에 대한 흥미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식생활관리에 대한 태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고, 남녀 모두 식생활관리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는 높지 않았으며 어머니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을 가정에서의 식생활관리에 더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생활관련 변인 중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과 가정요인 중 경제수준과 주거형태, 그리고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 태도 및 어머니의 참여 권장도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수준은 보통이상에서,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들이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업 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생활관리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이 그리고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나 태도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 성취도가 유의적으로 높으며 어머니의 참여권장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1)성별 2)경제수준과 주거형태, 3) 아동의 식생활관리 참여도, 흥미도, 태도, 4)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식생활관리 참여 권장도와 같은 식생활 관련변인들이 실과 식생활단원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식생활 및 식생활관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환경 조성 뿐 아니라 가정 환경 조성과 배려 및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식생활관리에 대한 참여권장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식생활관리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선행경험은 학교에서의 실과 식생활단원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조성과 배려를 증가시키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습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가정과 연계된 실과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희, 김영남(1999). 남·여 중등학생의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조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1(2), 111-123.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별책2).
- 김성희, 이기영(1997). 가정기기가 가사노동 수행과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81-94.
- 김주이(1999). 초등 실과학습의 생활화에 관한 경로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학수, 허창규(1969). 창의성 교육. 서울: 제일출판사.
- 류청산(1994). 국민학교 실과 교육의 정의적 행동 특성과 학습성취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순자, 정덕희(1997). 초등 실과교육 현장실태 조사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0(1), 95-114.
- 배상완, 나승일(2000). 실과학습의 생활화와 관련변인.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3(1), 1-14.
- 상정기, 김계동(1999). 초등학교 아동들의 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부산지회지, 4(1), 155-164.
- 신경숙(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국민학생의 정신건강과의 상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성자, 김영남(1996). 자취하는 남·녀 고등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관리 및 식사실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8(1), 11-21.
- 이미자, 윤인경(1999). 실과 식생활영역의 수행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2(3), 1-22.
- 이지선, 조혜정(1999).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11-125.
- 이준임(1996).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내용 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식(1999). 중학생의 기술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순옥, 박행모(1997).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과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직업교육연구, 16(1), 135-144.
- 채금희, 최동숙(2000). 중학생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3), 39-51.
- 최유현(1997). 21C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혁에 따른 초등실과 교육과정개발의 구조적 모형과 그 타당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0(2), 45-86.
- 한혜숙(1992). 남녀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흥미도·실생활 적용도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